

# 전라도 멋·맛·흥에 푹 빠져보라



전남 갯벌은 국내 생태관광의 보고(寶庫)로 꼽힌다. 고흥 갯벌.



청년 창업과 재래시장 리모델링을 통해 광 주의 대표적 인기 관광지 자리 잡은 1913 송정역 시장.



국내외 관광객들 사이에 유명 관광지로 꼽히는 전주한옥마을 전경.

## 전라도 1000년

### 광주·전남·전북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

(1) 프롤로그

전라도 천년이다. 이벤트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전라도가 걸어온 천년, 그 자체가 역사이자 문화요 관광자원이기 때문이다.

전라도 3개 시·도(광주시·전남도·전북도)는 올해를 '전라도 방문의 해'로 삼고,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서울에서 대대적인 선포식도 했다.

3개 시·도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의장,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 기초의회 의장협의회장 등 지자체 대표들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전라도가 보유한 역사·문화·생태자원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매력적으로 가꾸고 관광기반을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또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전라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공동마케팅 협력체계를 공고히하고,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도록 친절·질서·정결 서비스 운동'을 펴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전라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하기로 했다.

과거 천년의 역사를 토대로, 미래 천년을 열어가자는 합의다.

3개 시·도는 전라도 여행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선 등 관광자원을 수록한 호남권 관광지도를 만들고 ▲3개 시·도를 연계한 명품여행상품 개발과 스탬프투어 등을 통해 관광자원화하고 ▲전라도 인문·역사·생활 체험하는 청소년 문화대탐험단을 운영하며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형 '전라도 아트&버스킹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9개 분야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행객들에게 그동안 몰랐던 전라도 속정과 속살을 들여다볼 절호의 기회다. 여행자마다 가슴에 와 닿는 전라도 풍경과 정취는 다를 것이다.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전라도에서 멋과 맛, 흥을 즐겨보시라.

전라도민 모두는 주인공이다. 전라도를 찾은 손님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살뜰히 대해주자. 다시 발걸음을 할 수 있게.

### 호남 관광지 100곳 선정·명품여행상품 개발

### 인문·역사·생활 체험 청소년 문화대탐험단 운영

###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 '전라도 아트&버스킹 페스티벌'

◇광주, 1913송정역시장·광주폴리 매력적  
광주에서는 국립5·18민주묘지를 비롯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무등산국립공원, 양림동평간마을, 맥문동숲길, 1913송정역시장 등 15곳이 선정됐다.

광주는 '예향(藝鄕)'이다. 전통문화관과 의재미술관이 광주의 '과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 광주폴리는 광주의 '현재'와 '미래' 문화예술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우규승 건축가가 설계한 아시아문화전당은 무등산과 주변 풍경을 거스르지 않도록 옛 전남도청사 뒤편 부지를 파고 예술극장과 문화창조원, 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 민주평화교류원 등 공간을 배치했다.

지난 2015년 11월에 개관한 이후 '아시아'와 '문화'를 주제로 연중 다양한 전시·공연·교육·행사 등이 펼쳐지고 있다.

생소한 개념인 '광주폴리(Gwangju Folly)' 역시 광주만의 볼거리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3차에 걸쳐 옛 광주읍성터 등 도심내 작은 공간에 28개 작품을 세워 여행에 걸맞은 도시적 문화풍경을 만들고 있다. 광주폴리 홈페이지(gwangjuolly.org)에서 폴리투어 신청(5명 이상)하면 '폴리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둘러볼 수 있다. 1913송정역시장과 대인예술아시아장은 젊은 세대들에게 활력 넘치는 광주의 모습을 보여준다.

지난해 8월 개봉된 영화 '택시운전사'를 인상 깊게 본 여행자라면 5·18민주묘지와 5·18자유공원, 민주화운동기록관을 둘러보면 좋을 듯하다. 1980년 5월 신군부가 시민들에게 어떠한 만행을 자행했는지, '북한군 잠입설' 등 당시 유포돼 지금까지도 떠도는 왜곡된 사실이 어떤 것인지, 현

재 행방불명자 찾기와 발표책임자 규명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등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광주 문흥동에 자리한 '맥문동숲길'은 최근 사진작가들의 주목을 받는 곳이다. 8월이면 메타세쿼이아 숲아래 개화하는 보랏빛 맥문동을 감상하며 힐링할 수 있는 산책길이다.

◇전남, 원색의 봄빛깔과 생태관광 다채  
전남에서는 목포 근대역사거리와 여수 '금오도비렁길', 강진 다산초당 등 48곳이 뽑혔다.

흔히 '남도의 봄은 섬진강을 거슬러 온다'고 말한다. 3월에 광양 대화마을과 구례 산수유마을에서 '봄의 화산(花飜)'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다. 노란 유채꽃과 돌담이 일품인 완도 청산도와 연초목빛길 기하학적 선을 이루는 보성 녹차밭이 '봄의 교향악'을 이어 연주한다.

남도 들녘과 산자락에 펼쳐지는 봄빛깔에 대해 유홍준 교수는 이렇게 일갈한다. "나는 우리 시대의 화가들에게 단호히 말한다. 남도의 봄빛을 보지 못한 자는 감히 색에 대하여 말하지 마라."

여름과 가을, 겨울 역시 색의 성찬은 계속된다. 장성 짙은 초목의 죽령산 편백나무 숲을 찾아 피톤치드 향을 호흡하며 몸과 마음을 맑게 하고, 동양 최대의 백련(白蓮) 자생지인 10만평 규모의 무안 회산백련지에서 망중환(忙中閑)을 만끽할 수 있다. '애기단풍'으로 유명한 장성 백양사 단풍나무 숲은 백암산과 어우러져 선경(仙景)을 보여준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 무안 생태갯벌센터는 갯벌 생태계와 그곳에서 사는 무수한 생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강진 다산초당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생활을 하며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목민심서' 등 저작을 남긴 창작의 산실이다. 본래 초가집이었으나

무너져 폐허화되자 1958년에 기와집으로 다시 지었다. 다산초당에서 백련사로 이어지는 오솔길은 다산과 혜장선사가 학문적으로 교류하던 발자취를 따라가며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공간이다.

고흥 연흥도는 섬 전체가 미술관이나 다름없는 '예술의 섬'이다. 선착장 입구에서부터 각종 미술 작품과 조형물이 설치돼 있고, 담장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2.5km 길이의 꽃무릇 숲길도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 ◇전북, 한옥마을과 금강·섬진강 발원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교동 일대에 자리한 한옥마을은 연간 1000만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다. 한옥마을 내에는 고풍스런 한옥 600여 채가 들어서 있다. 또 조선 태조 이성계의 어진(御眞)을 모신 경기전(사적 제339호)과 조선시대 천주교 순교터에 세워진 전통성당(사적 제288호)도 위치하고 있다. 주말이면 오래된 시간이 간직된 독특한 마을 분위기를 즐기려는 인파로 붐빈다.

군산은 일제강점기로 타임머신에 올라탄 듯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 식민시대 은행건물과 관공건물, 일본식 가옥 등이 산재해 있다. 군산시는 이러한 옛 건물을 일제 잔재로 헐어버리는 대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도시재생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월에는 '시간여행 축제'도 열려 도시의 매력을 한껏 발산시킨다.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와 힐링 명소도 전북의 자랑거리다. 정읍 내장산과 무주구천동 33경, 완주 대둔산, 진안 마이산, 순창 강천산, 부안 변산반도 등이 대표적이다. 임실 성수산 '왕의 숲'과 정읍 솔티달빛생태숲, 순창 섬진강 장군목, 장수 금강첫물 뜰농생, 진안 데미샘 자연휴양림도 여행자들이 자연과 하나가 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임실군은 성수산 편백나무 숲을 매입한 후 '산림 바이오윙터타운'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라도 대표관광지 100선'은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대표적인 유명 관광지를 망라하고 있다.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마음가는대로, 발길 닿는대로 남도의 멋과 맛, 흥을 찾아 길을 떠나보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라도 천년 슬로건 발표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31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전라도 천년맞이 타종식 행사'에서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는 슬로건과 엠블럼을 공식 발표했다.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등 3개 시·도는 전라도 천년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을 지역민과 공유하고, 전라도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라도 천년 기념 7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도 천년 기념 슬로건 및 엠블럼 제작사업'은 '전라도 이미지 개선사업'의 하나로, 전라도 천년의 의미와 미래비전의 상징체계를 구축하고 기념사업의 축제 분위기 조성, 홍보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앞서 3개 시·도와 (재)광주디자인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공모 및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각계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 회의 등을 거쳐 슬로건과 엠블럼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슬로건과 엠블럼은 '천년을 간직한 전라도, 3개 시·도의 화합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새로운 천년으로의 비상'의 의미와 지나온 천년의 역사를 품고 새로운 천년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전라도의 비전을 담고 있다.

슬로건과 엠블럼은 앞으로 전라도 천년기념 7대 사업 각종 행사의 휘장, 사인물, 홍보물 등에 활용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원건설(주)**  
**(주)대원**





- ◆ 수문 제조업
- ◆ 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
-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 조경식재 공사업

전화 061)351-4056